

2009. 07

CNP 차안박피부와 웹진 (온)은 격월로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핫클리닉 Hot Clinic

차안박피부과가 추천하는 시술백과  
행복가족의 여름휴가지 차안박피부과!!

PAGE : 2



편인터뷰 Fun Interview

한국 방문지 0순위 차안박피부와  
유학생 인터뷰 최서영

PAGE : 5



줌인 Zoom In

잘되는 병원 경영 노하우!  
압구정 CNP 차안박피부과

PAGE : 7



해피타임 Happy Time

2009년 상반기 결산 CNP NEWS  
CNP 차안박피부과의 미주알 고주알 뉴스

PAGE : 9



포스트잇 Post-it

수상스키 초보에서 고수되다  
수상스키 최웅우돌 도전기!

PAGE : 11



칭찬릴레이 Praise Relay

CNP 차안박피부과의 마이더스 손!  
원 밖에서 만난 그녀들의 칭찬릴레이

PAGE : 13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npskin.com/webzine>에 방문하시면 CNP 차안박피부와 웹진을 보실 수 있으며, 방문후기 작성시 행운이 따릅니다.



## 핫클리닉 : Hot Clinic

CNP 차안박의 피부과 시술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정보 얻으시고 예뻐지세요!



## “ 이빠지는 여름휴가지, 차안박피부과가 추천하는 시술백과

행복가족의 여름휴가지는 차안박피부과!!



### 「 아빠의 마음, 내년이면 고3인 딸, 여드름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어」

딸 아이가 내년이면 고3. 남들 하는 과외 한번 하지 않고 학원과 독서실만 전전하며 상위권을 유지하는 기특한 아이다. 중학교때부터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여드름이 이제는 거의 얼굴을 점령하듯 자리를 잡았다. 손으로 눌러 짜고 싶을 만큼 잘 익은 고름이 가득해서 외형상으로도 보기 싫지 않다.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나름 얼마나 고민이 많을지 겉에서 보고 있기 안타까울 뿐이다. 내색 한번 하지 않은 속깊은 아이지만 저 나이때는 얼마나 외모에 신경이 쓰일지 안다. 그저 부모마음 헤아려 주는 딸아이가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오랜 고행을 마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다. 올 여름 휴가는 반납하고자 한다.

**닥터 TIP : 방학 여드름 치료의 대명사 PDT**

PDT 여드름 치료술은 여드름의 주요한 원인인 여드름균과 확장된 피지선을 파괴시킴으로써 약을 먹는 것보다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고, 2~3번의 치료로 10개월 이상 여드름을 덜 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치료시 광흡수제를 피부에 도포하고 1~2시간 동안 암실에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24시간 동안은 자외선 차단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적 장기간의 휴가를 낼 수 있는 여름휴가철이나 학생들의 경우는 방학을 이용해 치료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PDT 여드름 치료술은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평소에는 학업으로 인해 여드름 치료를 할 수 없어 관리소홀로 이어지면서 여드름 흉터와 자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여드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PDT는 피지선을 파괴시키므로 여드름 발생을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 **여드름이 생긴 후 손으로 짜거나 할 경우 자칫 흉터와 자국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치료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5일 정도 지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지만 대략 1주일 정도가 지나면 치료 부위가 깨끗해집니다.

## I 엄마의 마음, 유학생 아들의 여드름흉터 이젠 해결해 주고 싶어

딸아이도 걱정이지만 난 사실 아들에게 더 눈길이 간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 학생들도 아니고 외국인들과 경쟁 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던 아들이 입국하는 날 보니 피부가 상할때로 상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움푹 파이고, 눈에 뭘 정도의 미세한 흉터들이 지난 번하고 또 다르게 얼굴에 자리잡았다. 지난 겨울방학때 뒤늦게 피부과를 찾아 다녔지만 출국날짜를 앞두고 미리 계획하지 못한 게 한이었다. 타향에서 자신감이 충만해도 기죽기 마련인데 부모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름휴가는 기꺼이 스테이케이션!!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닥터 TIP : 유학생들의 Must have D.R.T. 진피재생술**

유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D.R.T.(Dermal repair Therapy) 진피재생술은 여드름 흉터 치료로 검증받았습니다. 피부재생을 위한 프락셔널 방식의 레이저로 치료를 원하는 부위에 핀홀을 진피층까지 생성시켜 빠르게 재생을 유도 시술 시간도 단축하고 효과도 배가 시키는 방법입니다.

D.R.T 진피재생술 치료법은 흉터치료 레이저의 대명사인 어븀야그 레이저와 프락셀 레이저를 결합한 형태의 치료 방법입니다. 흉터 부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미세 구멍을 내서 진피의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수천 개의 미세 열치료 존(zone)에 의해 빠른 재생이 진행되므로 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 없이 흉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은 2~3개월의 짧은 체류기간 때문에 적절하게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시작입니다. 단기간에 흉터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드름흉터 치료로 권위있는 가까운 차안박피부과에 방문하세요!





## ▶ 여드름,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모공, 치료 프로그램의 특징과 치료기간

	여드름	여드름 자국	여드름 흉터/모공
치료목표	염증을 완화하고 흉터를 남기지 않게 여드름을 치료, 재발 방지	붉은 자국이 색소침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빠른 재생 유도	진피를 자극, 재생 시켜 패인 여드름 흉터와 넓어진 모공을 치료
증상 사진			
치료 및 시술 프로그램	여드름 물리치료 쿨젠치료 스킨 스케일링 PDT 포토스케일링	IVS 메디컬케어 쿨젠 치료 스킨 스케일링 클라로필링	DRT진피재생술 스타투스, 프락셀 모자이크
치료기간	4주~8주	8주~12주	5주~12주

I 자녀의 마음,  
부모님의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파

모처럼 방학을 맞았는데 경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부모님 여름휴가 역시도 반납이라고 한다. 스테이케이션을 명랑하게 외치는 부모님 마음이 느껴져 한편으로 속이 편치 않다. 1년 내내 일하는데 한 여름 며칠의 휴가도 반납하고자 하는데는 아무래도 경기가 예전만큼 못하다는데 있을 것이라고 하니 돈 먹는 하마인 우리들의 입장이 참 편치 않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엄마의 주름과 칙칙함을 넘어 그늘져 보이는 아빠의 얼굴. 어느새 늙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이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싶다.

## 닥터 TIP : 부모님을 위한 리마인드 시술 '보톡스, 필러, 기미레이저, 쿨젠테라피'

세월을 되돌리고 싶은 자녀들의 마음이 통하면 당장 10, 20년이 아니더라도 몇 년은 더 젊음을 붙잡을 수 있는 리마인드 시술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머님들은 어느새 자리잡은 잔주름을 잡기 위한 보톡스를 선호하고 필러를 통해 움푹 패이게 되는 얼굴 부위에 살짝 변화를 시도합니다. 티나지 않게 변화를 주는게 더욱 효과적이라 외과적인 수술보다는 피부과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년의 귀족기미로 대변되는 아빠들의 칙칙한 얼굴은 대부분 색소치료를 통해 해결합니다. 남자 얼굴에 웬 기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비즈니스 차원의 골프나 외부 활동으로 인해 기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흔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의외로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 편인터뷰 : Fun Interview

CNP 차앤박피부과의 인연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 “ 피부는 나의 경쟁력이다, 한국 방문지 0순위 ‘차앤박피부과’

- 유학생 최서영 ([www.cyworld.com/watahottie](http://www.cyworld.com/watahottie))

차앤박피부과 양재본원은 방학때만 되면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6개월이나 일 년 주기로 내원하는 유학생들이다. 45일이라는 짧은 방학 기간동안 매 순간이 금쪽 같을 수 밖에 없는 유학생들에게 차앤박피부과는 수많은 관광지를 제치고 한국 방문지 0순위로 손꼽힌다.

그들이 차앤박피부과를 꼭 방문하는 이유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우수한 메디컬 스킨케어때문이라고, 유학생 최서영 씨의 차앤박피부과의 추억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한다.

### 뉴질랜드에서 만난 여드름 뽀미~

초등학교 6학년때 떠난 유학길. 벌써 10여년을 맞이하다 보니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와는 다르게 단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눈망울에 아직도 소녀의 수줍음과 다재다능한 끼가 묻어 나는 게 꿈많은 20대 초반의 젊음을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원래는 건성피부예요. 흔히들 건성피부 하면 여드름하고는 담쌓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피부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학 중 생긴 여드름이 너무 난감했어요. 정말 갑자기 나기 시작한거예요. 여드름이 나고 한국에 방문했을때는 모두들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무엇보다 가장 난감했던 사람은 자신이 었다는 최서영 씨.

피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나 자책하면서도 거울보는 것도 싫고,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도 지인을 만날 수도 없었다고 한다. 차앤박피부과의 인연은 가족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언니와 엄마와 함께 가끔씩 찾았던 곳인데 정작 본인의 치료를 위해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 컴백 뉴질랜드, 차앤박에서 **도자기** 피부를 되찾다



도자기 피부를 되찾다.

지금은 한국에 올때마다 찾는 방문지 0순위가 되었지만 처음 치료를 위해 방문했을 때는 반신반의한 상태였다. “외국 애들도 여드름이 참 많아요. 뉴질랜드에서는 종합 클리닉 개념으로 피부과가 있고 진료후 약을 처방 받는게 대부분이예요. 차앤박피부과처럼 진료와 상담, 레이저 시술에서 케어까지 이어지는 메디컬스킨케어는 일반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앤박피부과를 방문하기 전까지는 과연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녀가 뉴질랜드에 돌아갈 즈음에는 여드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었다. 뉴질랜드 친구들 역시 믿기 어렵다는 듯 몇번이고 최서영씨의 얼굴에 대해 궁금해 할 정도였다고.

이후 차앤박피부과는 연례행사처럼 한국 방문후 꼭 들려야 하는 방문지로 통한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앤박 피부과 홍보대사가 되어 뉴질랜드에서는 물론 한국에 와서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차앤박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애써 차앤박이 좋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피부 좋아졌다. 피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차앤박피부과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고, 화장품을 뭘 쓰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소개한 친구들도 많아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도자기 피부의 비결이지만 항상 친절한 차앤박피부과의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 하게 된다고 한다.

## 그때그때 다른 나의 피부 사랑 멘토, 차앤박피부과

그녀는 피부과 방문 주기가 남들과는 달리 길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평소 관리에 신경 쓴다고 했다. 원장님들이 조언해준 방법들 뿐 아니라 차앤박화장품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케어를 대신한다. 또한 한국을 방문해서는 놓치고 있었던 색소 치료와 스킨스케일링을 통해 피부에게도 휴식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엠톡스에 관심이 가요. 사각턱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항상 신경 쓰였던 턱 부위를 가름하게 할 수 있는데 외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짧은 기간동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기대됩니다. 물론 원장님과 상담해 봐야겠지만요.”

뉴질랜드에서 뽀루지가 한두개만 나도 차앤박피부과 생각이 간절해진다는 최서영 씨. 차앤박 피부과를 방문하는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의 피부사랑 멘토는 차앤박피부과라는 점이다. 또한 우수한 메디컬스킨케어의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나의 피부 사랑 멘토



## 줌인 : Zoom In

CNP 차앤박 피부과의 지점을 소개하는 코너로 보이지 않는 2%까지 지점의 면면을 시원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 “CNP 차앤박피부와 압구정점

## 잘되는 병원 경영 노하우! 정답은 Like a Family



압구정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로데오 거리, 연예인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 고급 등등 그 상권이 청담동이나 인근 지역으로 옮겨진지가 오래라는 사람들도 있으나 압구정하면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다.

그 중심에서 피부주치의로 자리잡은 CNP 차앤박피부와 압구정점은 8년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운이 따른다면 대기실에서 국내에 내놓으라는 유명 연예인의 생얼을 볼 수도 있지만 그들에 대한 특별대우가 없는 것으로 더 유명하다. CNP 차앤박피부와 압구정점 대기실의 고객은 모두가 다 특별한 고객이기 때문이다. 8년간 희로애락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잘되는 병원 경영 노하우는 무엇일까. 정답은 이구동성으로 Like a Family. 한 여름의 팔빙수처럼 명쾌한 그들의 Like a Family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주 특별한 만남!

### 초심(初心)원칙,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라

박진성 원장의 가족애찬론은 직원 채용부터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 직원에게 먼저 모든 업무는 익숙해지는 순간 '지겨워 진다'는 사실을 귀띔한다.

“입사 결정도 안된 면접자에게 힘빠지는 소리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병원 경영을 하다 보니 면접시 초심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는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생활 10년이면 사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건 대표나 직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초심을 기억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나태함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 한두해 같이 갈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단호하다.



최근 의료환경의 경쟁이 치열하다. 명의라는 말보다는 의료가 신뢰 기반이 아닌 쇼핑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박진성 원장! 더욱 정진하고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 더욱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시너지는 고객에게 발휘된다. 서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장기 고객이 많은 압구정점에서의 초심원칙은 Like a family로 통한다.

“주변에 피부과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판단해서 잊지 않고 찾아 주는 것이지요. 어느새 8년이라는 세월을 이 곳에서 함께 하다보니 직원들은 물론이고 고객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객에 대해 우리 병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0순위 고객은 내부직원, 그들을 만족시켜라

올해 들어서면서 직원들의 연봉 만큼이나 복지혜택에 역점을 뒀다. 직원들에게 ‘쓸만한 or 돌아가는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아무리 ‘가족’을 외쳐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직원들과 병원 공간외에서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최근 직원들과 영화를 봤다는 박진성 원장은 평소에 무뚝뚝한 이미지에 변화를 시도해 직원들에게 한발짝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CNP차앤박피부와 다닌다’라는 말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고객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은 물론이고, 외부강사를 영입해 크고 작은 강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직원들이 술선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부직원을 결속을 다졌다.

이러한 경영 의지가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직원을 역시 연차와 상관없이 Like a Family 를 술선수범하고 있다. 현재진행형의 에너지이저로 병원 직원들을 총괄하고 있는 이금연 과장은 직원들간의 화합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Like a Family 의 정수를 설명했다. “압구정점은 의외로 직장인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고객들 역시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모션케어(emotion care)가 정말 중요합니다. 압구정점이 통련할 수 있는 비결 역시 이 중요성을 알고 계속 정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다양한 에스테티션의 리더인 압구정 차앤박 코스메틱의 정현윤 실장은 막내 직원의 의견까지도 귀담아 듣고, 서로 의논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CNP차앤박 브랜드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화 되는 것처럼 압구정점 역시 원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매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진의 노하우나 메디컬 스킨케어의 체계성 그리고 화장품의 제품력 등이 CNP차앤박 피부과의 브랜드력에 밑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따뜻함과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압구정점의 8년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Like a Family forever!!

박진성원장



8주년 축하



축하제약







## 해피타임 : Happy Time

CNP 차안박 피부과의 기분 좋은 소식 및 전 지점이 참여하는 캠페인, 제휴, 온오프라인 등의 현창스케치를 담았습니다.



### 2009년 상반기 결산 CNP NEWS

## CNP 차안박피부과의 미주알 고주알 뉴스

상반기 CNP 차안박피부과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Best of Best 만을 선정해서 알려드립니다.

### 1 2009년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선정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피부과 부문 "CNP 차안박피부과"

출처 : 조선일보	해닉스파크	보광
베이커리카페	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아한의원	함소아한의원	함소아
피부과	CNP차안박피부과	CNP차안박피부과
휴대폰	애니콜	삼성전자
주방가구	리첸	리바트
프리미엄기저귀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유한킴벌리
프리미엄우유	내곁에목장	파스퇴르유업

※ 전체조사결과는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참조([www.ksa.or.kr](http://www.ksa.or.kr))

CNP 차안박피부과가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개발한 브랜드 평가제도인 프리미엄 브랜드 지수 피부과 부문에 선정이 되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선정은 국내 우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CNP차안박피부과의 위상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이다.

전국 22개 네트워크 병원에서 평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CNP 차안박피부과의 노력이 소비자에게 높게 평가 받고 있으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향후에도 소비자를 우선을 생각하는 CNP 차안박피부과가 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소명을 다한다는 의지로 오늘도 정진의 발걸음을 옮긴다.

###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란?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평가제도로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가치, 마켓 리더십, 브랜드 로열티 5개 항목을 평가한다.

## 2 D.R.T 진피재생술의 성공적 런칭 여드름 흉터 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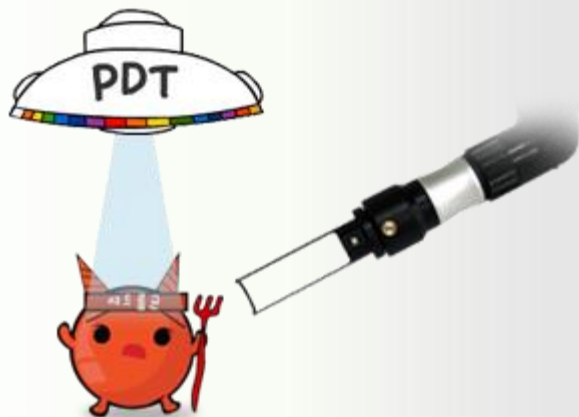
CNP차앤박 피부과가 지난 연말 런칭한 D.R.T 진피 재생술의 여드름흉터 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시술로 떠오른 D.R.T 진피 재생술은 그 명성만큼이나 치료효과가 뛰어나 의료진과 고객 모두에게 칭송받고 있다.

CNP 차앤박피부과는 1996년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한 어블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박피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여드름 흉터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의료계에서 당시 여드름흉터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치료로 터부시됐기 때문에,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를 위한 흉터를 만들어 새로운 재생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론은 실제 드라마틱한 흉터 개선 효과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야심차게 선보인 D.R.T 진피 재생술은 레이저의 진보와 CNP 차앤박피부과 의료진의 우수한 실력으로 일궈낸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D.R.T 진피재생술은 CNP 차앤박피부과 의료진에 의해 여드름 흉터 치료를 넘어 모공, 주름, 흉터, 잔주름, 탄살, 피부 탄력개선에 도움이 되는 팔방미인 시술로 검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3 메디컬스킨케어의 진수를 선보이다 유학생 프로그램 런칭



메디컬스킨케어의 선두주자로 시장을 리드해 갔던 CNP차앤박피부과가 유학생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정통적으로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7, 8월은 성수기로 통한다. 하지만 여름방학을 비교적 일찍 시작하는 유학생의 경우 그들을 위한 메디컬스킨케어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CNP차앤박피부과는 짧은 한국의 체류기간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메디컬스킨케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런칭하였다.

유학생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선불리 치료할 수 없었던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치료를 비롯해 모공과 색소치료에 이르기까지 장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스케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계획을 짤 수 있게 했다. 현재 CNP차앤박피부과에는 출국을 앞둔 유학생들의 발걸음이 어느때보다 분주한 상황이며 유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후문이다.



## 포스트잇 : Post it

CNP 차앎박피부와 가족의 추억에 노랑, 파랑, 빨강의  
포스트잇을 붙여 모두의 추억으로 엮어가는 코너입니다.  
hasowsow@cnpskin.com



“

## 수상스키 초보에서 고수되다.

### 좌충우돌 도전기!

사진, 글 삼성점 류청순 수간호사

**레저스포츠**가 봄을 이루던 10년 전, 친구와의 청평여행이 수상레저와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물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계기는 거의 대부분 어린 시절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경우다. 아득한 옛 기억의 어린아이였던 나는 거의 물에 빠져 죽을뻔한 기억이 있다. 그래서 수상레저는 나와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 수상스키 입문. 속도 울렁울렁, 배도 살살 아프고 몸에서부터 거부반응이 시작됐던 첫 입수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친구가 먼저 투스키(two ski)를 신고 물에 들어갔다. 어찌나 용감해 보이던지, 30분 동안 호수의 물을 다 마실 듯 먹으며 정작 물 위에서 뜨지는 못하는 상황, 그 순간 거짓말처럼 몸이 뜨기 시작했다. 수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첫번째 난관은 물에 뜨는 것이듯 모든 수상레포츠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시작이 반이라고 물에 뜨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수영도 못하고 스키를 신고 혼자 물에 들어가지도 못해 강사를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다.

스키가 벗겨지면 알아서 헤엄쳐 스키를 찾아 신어야 하는데 그저 물 위에 동동 떠있기만을 4개월 그렇게 여름 시즌은 끝이 나고 다음해를 기약해야 했다. 나의 첫번째 수상레저 도전기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나의 물에 대한 공포가 장애요소가 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3교대로 이어지는 직장생활과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년 시즌이 마감되는 것만 바라봐야 했던 것이다.





바야흐로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리다가는 평생 수상스키를 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이 좀 급해졌다. 내 기억 한편에 수상스키에 대한 그리움이 행동을 실천하게 만들었다. 수소문 끝에 동호회에 가입했고, 본격적으로 수상스키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주중에 수상스키를 함께 탈 수 있는 지인까지 만나면서 수상스키와의 나의 인연에 새 막을 열었다. 이제 나에게 있어 수상스키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보트와 스키 하나에 몸을 맡기고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다. 수상스키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충추호와의 만남은 수상스키의 매력에 빠져드는 또하나의 계기였다. 잔파도가 저항력을 낮추면서 초보자도 가볍게 몸을 맡길 수 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은 10명이 넘는 회원들이 생기면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수상스키 타는 곳, 일명 빠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장소에는 우리들만의 추억이 쌓이고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잠시 자연에 맡겨 두기 위해 가방을 든다. 이번 시즌은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10월까지 계속 다닐 생각이다. 몸은 힘들지만 나는 떠난다. 수상스키의 매력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푸른빛의 가슴을 활짝 열며 나의 시름을 빨아들이듯 정화해 준다고 말이다. 아름다운 여름, 자기의 마음을 잠시 맡겨 놓을 수 있을 자연을 품을 찾아 보길 권한다.



## 칭찬릴레이 : Praise Relay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CNP 차안박피부과의  
보석 같은 여러분을 추천하고 칭찬하는 공간입니다.



## “직접 만나본 CNP 차안박피부과의 마이다스 손!!!

### 원 밖에서 만난 그녀들의 칭찬릴레이

메디컬 스킨케어를 도입, 피부과의 역사를 새로 쓴 CNP 차안박피부과는 전문 에스테이션으로 구성된 CNP 차안박코스메틱의 양질의 서비스가 유명하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단계적인 트레이닝은 향간에 'CNP 차안박 일년이면 다른 병원 3년차 경력에 준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믿거나 말거나 지만 말이다. 네트워크 전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진행되는 교육은 주차에 따라 **간호부서장, 메디컬코디네이터, 에스테이션, 그리고 열린서비스교육**의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CNP차안박코스메틱 실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출석률이 높다.

원내에서는 유니폼으로 끼를 꼭꼭 숨긴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주력하지만 교육에 참석한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끼로 무장되어 있다. 코스메틱 교육 현장에서 만난 각 지점의 마이다스 손인 코스메틱 실장들의 칭찬릴레이로 시작한다.



고태희 실장

### 여의도점 박상미 실장이 칭찬하는 신촌점 고태희 실장

**고태희** 실장은 CNP 차안박 피부과에 장기 근속자라 그런지 시야가 넓고, 환자에 대한 경험치가 다양하다. 컴플레인 하는 고객이나 절대 리얼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강점인 것 같다. 후배로서 많은 것을 배운다. 엄할때는 엄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뒤에는 작은 것에 감동하고 여린 마음이 있다. 경력이 많은 실장이지만 막내 직원을 대할때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본인이 좁힐 수 없는 영역에는 적절한 멘토를 지정해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준다. 감성노동을 많이 해야 하는 에스테이션의 감성을 제대로 케어한다.

### 신촌점 고태희 실장이 칭찬하는 인천점 김영희 팀장

**어점** 그렇게 싹싹하고, 밝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즐겁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팀장이다

오랫동안 지켜본 건 아니지만 참 친숙하다는 느낌이 든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친화적인 모습이다. 저런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한다면 모두들 금새 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주변 사람을 잘 챙겨주는 것도 김영희 팀장의 장점인 것 같다.

20대의 열정이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도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어 참 차애펙스러운 사람이구나란 생각을 했다. 그 행복바이러스가 인천점을 중독 시킬 것 같다고나 해야 할까.



### 인천점 김영희 팀장이 칭찬하는 여의도점 박상미 실장



**박상미** 실장은 논리적이다. 무조건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보다는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고, 말도 조리있게 잘 한다. 미소가 참 이쁜데 업무 관련된 의견 개진을 할 때는 똑부러지는 게 참 부럽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이 없다면, CNP 차애펙피부과에 대한 금지가 없다면 저런 에너지가 계속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사회 경험치가 많지 않은 나로서는 그런 당당한 발걸음에 후배들에게 지금처럼 좋은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 현장미션

나에게 CNP 차안박 피부과는  다.

나에게 CNP 차안박피부과는 **발전**이다.

새로움을 항상 시도하는 차안박 가족들로부터 시도하고 시행하고 공부도 꾸준히 해야하는, 항상 발전하는 차안박인 것 같기 때문이다. - 무기명

나에게 CNP 차안박피부과는 **과제**다.

배움과 동시에 꾸준히 나 스스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과제인 것 같다. - 천안점 최정안 팀장

나에게 CNP 차안박피부과는 **끝나지 않는 모험**이다.

시간이 흘러도 정복되지 않는 무한한 도전의 장이다. 해도해도 끝이 없다. 배움도 업무도.  
- 여의도점 박상미 실장

나에게 CNP 차안박피부과는 **새로운 만남**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환자와 만나서 친해지고 그들의 피부 개선되는 것을 볼 때마다 기분 좋게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환희가 있다. - 명동점 정현진 실장

나에게 CNP 차안박피부과는 **20대**다.

맨땅에 헤딩하고-타 피부과보다 항상 먼저-정열로 문제를 해결하고 겁없이 부딪혀 이겨내어 여기까지 오다. 20대를 지낸 CNP 차안박. 그래서 내가 차안박은 항상 20대의 정열을 의미한다. - 양재본원 박미숙 실장

나에게 CNP 차안박피부과는 **도전**이다.

차안박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 6년째가 되어가지만 하루하루 배움과 공부를 통해 매번 도전에 직면한다. - 삼성점 최정희 실장